

##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수빅반도에 있으며 대학교라는 느낌보다는 어학원 같은 느낌이 크게 느껴졌고, 생활하는 내내 다른 대학 학생들과도 같이 생활하여 정말 영어를 배우러 왔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수업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에 끝나는 수업이었습니다. 1:1수업 4시간, 그룹수업 4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여 바로 다음 날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여 성적에 맞춰 반을 배정받았습니다. 8시간을 영어로 수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50분 수업하면 10분 쉬는시간이 주어졌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자신이 최대한 영어로 말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시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떨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드트립	시티투어, 요트투어, 워터파크 방문 등 4주간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 필리핀에 온 첫날 진행하였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면 될 지 배울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 이용하는 방법, 마트, 상점 등을 방문하여 눈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운동관련 활동들도 진행되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야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1월 28일 출국하였고 날씨는 여름 날씨였습니다. 낮 시간대에도 더웠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였고, 반팔이나 얇은 긴팔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옷은 전반적으로 여름 옷을 추천하며 샌들과 슬리퍼를 추천드리고 얇은 외투나 식은 땀겨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	가는 시기에 화산이 터져 걱정이 많았지만, 이곳에 머무는 내내 어떠한 걱정도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였던 부분을 생각해보면 마시는 물은 학교 정수기를 제외하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산 생수를 마시면서 혹시 모를 물갈이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숙소	방은 주로 3인1실로 생활하게 되는데 같은 학번대로 묶여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레에 대한 걱정도 많았으나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다행히 마주하지 않아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는 화, 목, 토 마다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v) 외부식당 (v) 기타 ( ) 식사는 주로 한식으로 나와 생활하는 내내 크게 한국음식이 먹고 싶다거나 그리워하는 점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외부식당 같은 경우는 몇몇의 식당을 제외하면 한국보다 싸거나 비슷한 가격이므로 자주 나가 먹어도 크게 부담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교통	FB, 사이클, 택시 등 여러가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나눠서 타다보면 크게 가격차이도 안나고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용했습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70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보험료	39230	KB손해보험
개인경비	약530000	430달러
합계	126923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준비사항은 크게 없는 것이 필요한 용품들은 모두 이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집에 갈 때 캐리어 무게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니 최대한 가볍게 짐을 싸가고 필요한 물건들은 룸메들과 잘 상의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 시간이 남는다면 기본적인 회화연습이나 어휘를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를 사용하며 말을 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느껴져 '공부 좀 하고 갈걸'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마지막 날 선생님들에게 드릴 선물을 미리 챙겨가면 정말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살 수 있지만 이곳은 모두 선생님들도 접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좀 더 한국적인 것, 그리고 편지까지 준비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별 수업에서는 조별 친구들과 상의하여 같이 준비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고 의미있게 느껴져서 이 점을 추천드립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4주 동안 외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많았었지만 이러한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재밌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다고 느껴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만에 영어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선생님들과 마주하며 영어로 말하고 배우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내뱉는 자신을 보며 조금이라도 배우고 얻을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이곳의 생활, 문화, 사적인 얘기 등등을 들으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면 기뻐하고 차이점을 발견하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한층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 지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 용기내서 다녀오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저녁식사(외부)



저녁식사(외부)



금요일 파자마 데이



워터파크



선생님과 마지막 날



수빅투어